

시 특별방역대책기간 운영

군산시, 지난 4일부터 내년 2월까지 방역관리 강화

군산시는 겨울철 발생 위험이 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구제역(FMD) 등 가축전염병 발생과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이번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AI 특별방역대책은 겨울철 AI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지역 내 가금농장의 AI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에 따라 이 기간 전국의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 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축산 관련 종사자와 차량은 이동 제한 등 행정명령(10건) 및 방역기준 공고(9건)를 발령했다.

주요 내용은 △축산차량 거점소독시

설에서 소독, △가금농장에 특정 축산 차량 외 진입금지, △산란계 및 메추리 농장 분뇨 반출 제한 △중계·종오리 농장에 지대사로 차량 진입금지, △가금농장에 백신접종팀 및 상하차반, 외부 축산관계자 등 진입제한,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닭 초생추·중추 산란상계, 육계 및 오리 유통금지, △축산 차량 및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등이다

올해의 경우 해외 고병원성 AI 발생이 전년보다 증가해 국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발생 위험이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어느 때보다 농장으로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간 AI 항원이 발견된 철새도래지

인근을 축산차량 통제제한 구역으로 설정해 운영한다. 바이러스가 농장으로 유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철새도래지 인근 및 취약농장 주변을 7개 구역으로 나눠 소독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살수차 2대를 운영한다.

또한 가금농장 및 산란판매소 마다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일대일 관리에 들어간다. 특히, 농장간 AI 바이러스 전파 차단 및 조기검출을 위해 가금농장의 바이러스 정밀검사 주기 단축 등 검사를 강화한다.

축산차량거점소독시설은 ASF가 발생한 지난 2019년 9월 19일부터 지금까지 운영해 AI, ASF 등 바이러스가 수평전파하는 것을 막고 있다.

시 관계자는 "철새도래지 등 야생철새가 서식하는 곳에는 출입을 자제해 줄 것 등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익산시, 불법 폐기물 이적 '행정대집행' 본격실시

행정대집행 통한 폐기물 처리 한계...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 필요

익산시가 낭산면 폐석산에 불법 매립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행정대집행을 본격 실시한다.

시는 지속적 침출수 유출 등 환경오염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주민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지난 7월에 낭산면 소재 폐석산(구. 해동환경) 내 불법 매립된 폐기물 이적처리를 위한 2차 행정대집행을 실시 했다.

시는 환경부와 협의해 올해 상반기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배출업체를 대상으로 행정대집행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내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에도 폐기물을 이적처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대집행은 올해 행정력을 집중해 국가예산 78억원과 도비 16.5억원을 포함해 총 109억원을 확보하였고 다음달 말까지 총 5만4천60톤의 폐기물을 처리할 계획이다.

행정대집행을 통해 지난해 4만9천톤과 올해 5만4천60톤을 처리할 경우 전체 매립량의 7.4%인 총10만6천톤의 폐기물을 처리하여 폐석산 인근 주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폐석산 내 불법 매립 폐기물을 전량 이적처리 하기 위해 30년간 매년 100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야 함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통한 폐기물 처리는 시간적·경제적인 측면을 감안할 때 한계가 있고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환경부, 배출업체, 주민들과의 지속적 협의를 통해 폐기물 처리대책 등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익산시 전국스포츠대회, 지역경제 '활기'

익산에 연이어 전국 규모 스포츠 대회가 개최되며 지역 경제가 활기를 띠고 있다.

시는 주말인 15일과 16일에 열리는 '무에타이대회'를 시작으로 '어울림출발대회', '전국 당구대회' 등에 참가하는 선수, 관계자 포함 1천 5백여명이 익산을 방문해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우선 15일부터 16일에는 익산시무에타이협회에서 주관하는 '제7회 백재무왕기 마스터 전국무에타이대회'가 개최되며 약 500여명 이상의 선수단 및 임원단들이 참석해 우승을 향한 명승부를 펼친다.

익산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되는 이번 대회는 무료관람 대외로 관심있는 시민은 누구나 현장관람할 수 있으며, 유튜브 채널(익산TV)을 통해서도 생중계 된다.

또한 2022 익산시장애 전국어울림출발대회와 제6회 익산시장애 전국 당구대회가 각각 15일, 16일에 개최된다.

익산시장애인체육회와 익산시장애인출발대회협회가 주최·주관하는 2022 익산시장애 전국 어울림 출발대회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선수가 600여명이 다함께 참여하는 화합과 소통의 장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대회를 통해 아직 활성화

되지 않은 장애인출발이라는 종목을 활성화시켜 장애인 체육 기반 확대가 기대된다.

익산시당구연맹이 주최·주관하는 제6회 익산시장애 전국당구대회는 월 6 당구클럽 외 7개소에서 개최되며, 동호인 40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앞서 12일부터 18일까지 7일간 열리는 전국승마대회에는 1,000여명이 넘는 선수와 관계자들이 익산에 머물 것 으로 예상돼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거리두기 해제 이후 연이어 개최되는 스포츠대회를 통해 선수들이 어김없이 기량을 발휘하는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익산시가 공공승마 인프라를 기반으로 전국규모 승마대회를 연이어 개최해 전국 최고 말산업 선두주자로 달리고 있다.

승마길... 거대 역새단지 가르며

익산시, 전국승마대회 개최... 말산업 선두주자 '도약'

익산시가 공공승마 인프라를 기반으로 전국규모 승마대회를 연이어 개최해 전국 최고 말산업 선두주자로 달리고 있다.

시는 12일부터 18일까지 7일간 익산시 공공승마장 및 승마길(용인면 강변로 1105 및 금강역새밭)에서 제2회 익산시장애 전국승마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국승마대회는 익산시승마협회가 주관·주최하고, 문체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 익산시가 후원한다.

시는 마필 300여 두와 선수 및 관계자 1,000여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전국 승마대회와 함께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며 승마 관광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대회가간 동안에는 총 3개 대회가 연이어 펼쳐진다. 12일부터 14일까지 '전국승마대회', 15일부터 16일까지는 '전국지구력 대회'가 열리고 17일부터 18일까지는 '전라북도 유소

년 승마대회'가 개최된다.

전국 규모의 시설을 갖춘 공공승마장과 천혜의 자연인 거대역새단지 내 승마길에서 펼쳐지고 장애물경기, 지구력경기, 웨스턴스피드경기, 권승경기, KHS-7(기승능력인증), 탈레이경기 등 다양한 종류의 경기가 약 800회 예정되어 승마인들의 관심과 주목을 한 몸에 받고 있다.

부대행사로 백제역사·왕관 만들기, 등 만들기, 연 만들기 등 농촌마을 유려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11월에는 익산시 승마협회 장기 승마대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명실상부한 서해안권역 거점 승마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제2회 익산시장애 전국승마대회 가 승마인뿐만 아니라 시민 모두가 즐기는 축제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예술의전당, 작품료 100% 국비공모사업 선정

군산예술의전당이 전문화진흥재단에서 진행한 전통공연예술 우수작품 지원 국비공모사업에 월드뮤직그룹 공평의 '스페이스 댄스'가 선정돼 오는 11월 29일 오후 7시 30분 소공연장 무대에 올린다.

전통공연예술 우수작품 지원사업은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의 대표사업으로 전통예술 지역 활성화 및 지역화대를 위해 전통공연 예술분야 우수작품을 지역공연장에 연계해 주는 사업으로 작품료 100%를 지원해 주고 있다.

이번 '스페이스 댄스' 공연은 한국 전통음악 특유의 서정성에 다양하고 흥겨운 리듬을 더해 독특하고 새로운 소리를 창출해 낸다는 평을 받으며 세계에서 인정받는 사단법인 공평의 작품으로 세계 민속악기와 창작악기를 통해 음악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설명하며 관객과 함께 소통하는 콘서트다. /군산=김판곤 기자

제13회 군산새만금 전국 걷기대회

군산시는 오는 15일 새만금방조제 일원인 제13회 군산새만금 전국 걷기대회를 실시한다. 이번 대회는 (재)군산시걷기연맹(연맹회장 김경)이 주최, 주관해 실시되며 선수 4,800여명, 임원 70명 등이 참가할 예정이다. 6.5km, 13km, 33km, 66km 등 4개 코스로 진행될 계획이다.

개회식은 오전 9시 40분 군산비응공원에서 실시되며 66km 구간은 14일 밤 9시 출발, 33km 구간은 15일 오전 6시 출발하며 6.5km, 13km는 10시 동시 출발한다.

참가자에게는 기념품, 식수, 간식 및 완보증이 제공되며 6.5km, 13km 구간은 현장접수가 가능하다(단, 33km, 66km는 사전접수).

자세한 문이는 (재)군산시걷기연맹(446-1061)으로 하된다.

시 관계자는 "주말 가족과 함께 새만금 방조제를 걸으며 소중한 추억을 만들기 바란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